

# “늘 부모님처럼 모십니다”

## 서부신시가지 '엄마손' 맛집 매월 독거어르신 초청 중식 대접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엄마손 맛집'에서 매월 독거어르신 30분을 초청해 꾸준히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 주위에 미담사례가 되고 있다.

'엄마손 맛집'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식사봉사를 자청했으며, 경기여과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내 부모님처럼 여기며 중식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엄마손 맛집' 운영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독거어르신 중식봉사 외에도 효자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지역주민 불분과 나눔,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동네복지 활동도 적극적인 효자4동 복지행정의 소중한 자원이다.

'엄마손 맛집' 운영 대표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힘닿는 데까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엄마손 맛집'에서 매월 독거어르신 30분을 초청해 꾸준히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 주위에 미담사례가 되고 있다.

## 반딧불 목공예 봉사단, 다목적 밥상 만들어 재능기부

반딧불 목공예 봉사단(송재경 회장)은 주말을 이용해 회원들과 함께 노인정 어르신들을 위한 다목적 밥상을 만들어 재능기부 했다.

노인정에 모인 어르신들이 밥상도 없이 신문만 깔고 식사를 한다는 소식이 있어 관내 노인정을 대상으로 밥상을 만들어 나눠주기로 한 것이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김훈 센터장)가 주최하고 무주군자원봉사센터(정진욱 센터장)가 주관하여 평소 본인들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공무원, 일반인, 퇴직자들이 본인의 숨어 있는 재능을 모아 소외계층 및 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밥상, 책상, 평상 등을 제작해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자아실현과 더불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런 자원봉사자의 긍정적 가치관 확립과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시키고 무주군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를 시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주=전문선 기자

## 삼천1동 새마을부녀회, 음식 나눔 봉사활동 전개

전주시 완산구 삼천1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2일 관내 삼천주공 3단지 아파트에서 관내 어르신들 300여 분에게 맛있는 닭개장을 준비해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15명이 정성어린 마음으로 준비한 맛있는 닭개장과 과일 등을 대접하고 이와 더불어 다정한 말벗이 돼드리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같이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진욱 새마을부녀회장은 "이렇게 작고 소소한 점심식사 대접에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 지속적으로 봉사할 힘이 생긴다.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하고 기쁘다"며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보고, 봉사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장수 죽림정사에서 백용성 조사 탄신 기념행사 열려

백용성조사 탄생성지인 장수 죽림정사에서 백용성 조사 탄신 제 153회 기념행사가 열렸다.

지난 2일(음력 5월8일) 봉행된 법회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 불심도문 대종사를 비롯한 죽림정사 주지이며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최석호(법륜스님)이장장, 유수스님 등 20여명의 스님 그리고 장종현 법안변장, 장수군의회 김용문 의원 등 지역 유지들과 정토회 회원등 전국 각지에서 4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봉행됐다.

용성 진종조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 전도교 대표 순병희와 함께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을 주도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를 주창하며 한국 불교에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다. 1928년 사상 처음으로 화엄경을 한글로 번역해 출간했다.서울 종로 도심에 '대각교당'이란 사찰을 세우고 절에 오르간을 들여놓아 찬불가를 직접 만들어 부르며 어린이 법회를 여는 등 불교 대중화에 노력했다.

용성 스님의 법맥을 잇는 '용성 문중'은 한국 불교계의 큰 산맥으로 자리하고 있다. 조계종 중정을 지낸 성철 스님은 용성 스님의 손자뻘 제자다. 법륜 스님은 "조계종 중정의 60%가 용성 문중"이라면서 "스님은 청정한 수행으로 승려의 직분에 충실했고,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타협 없이 실천했다"고 말했다.

한편 죽림정사에서는 이날 조사전인 용성교육관에 봉안된 7여래불 68조사 7대사의 차례제를 함께 봉행했으며 법륜스님의 즉문즉설도 이어졌다./장수=고관호 기자

## 전북농협·고창군지부, 육묘장 일손돕기 실시

농협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태호)와 고창군지부(지부장 윤종기)는 지난 1일 고창 흥덕농협(조합장 이상겸) 일직일동 20여명과 함께 육묘장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흥덕농협은 농가의 일손부족 해결과 영농비 절감 및 우량육묘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벼 이외에도 고추양파 등 육묘를 생산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있다.

벼는 올해 4만2천여정을 보급할 예정으로 파종후 발아실에서 키워낸 발아육묘 1만여장의 치상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고창=김영식 기자



## 덕진구 경제교통과, 조촌동 포도 농가 일손돕기 나서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2일 조촌동 포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으로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덕진구 경제교통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매 숙아 내기, 포도순 따기, 과수원 주변 환경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올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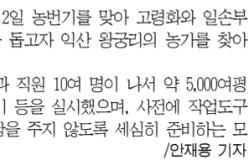
/인재용 기자

##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 익산 왕궁리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전주시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는 2일 농번기를 맞아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자 익산 왕궁리의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생태공원녹지과 직원 10여 명이 나서 약 5,000여평의 논 모판 나르기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실시했으며, 사전에 작업도구와 생수도 직접 준비해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목요일(월간)  
등록번호 전북라 7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사 010-9845-933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효자지구대, 아동·피해여성 상담기관과 간담회 개최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박현귀)는 아동, 피해여성 상담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하여 협업 강화 및 문제점 공유를 통한 실제적 피해자 보호방안 모색 등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박현귀 효자지구대장은 "경찰과 아동·피해여성 상담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 치안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림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가두는 것입니다. **가난은 학교를 가두는 것입니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